



사슴 직거래 장터 '사슴 계류장' 탄생

- 신뢰감 확보된 투명한 거래 기대, 유통마진도 없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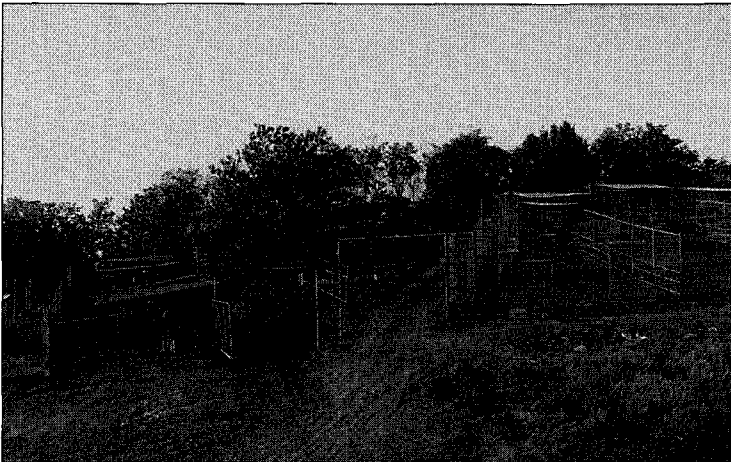
소로 말하자면 '우시장' 격인 직거래 장터가 사슴업계에도 탄생했다.

본회 김수근부회장은 본인 소유의 농장(성심사슴농장)에 1천여평의 사슴 계류장을 지난 4월초에 완공,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갔다.

사슴 계류장이란 사슴을 판매코자 하

들은 계류장에 입식 중인 사슴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능력과 가격선에 맞는 사슴을 골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판매자는 계류장에 사슴을 입식시킨 후 적당한 구매자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유통마진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 계류장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거래를 실시하기 때문에 중간 유통마진이 없어 유통마진만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또한 판매자에게는 사슴의 능력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시켜 판매토록 해 유통상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 멀리서 본 성심사슴계류장

는 축주들이 계류장에 사슴을 입식시키면 구매자들이 원하는 사슴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해 갈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사슴 분양을 원하는 구매자

총 2천5백여만원의 사비를 투자해 사슴 계류장을 완성시킨 김부회장은 "유통상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없애고 사슴을 믿고 판매, 구입할 수 있는 것이 계류장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투명한 유통,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류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계류장은 수십개의 개체관리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개체관리 칸은 석분을 깔아 늘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 또한 각 칸마다 워터캡과 사료조를 설치하는 한편 이를 두명의 전담 관리인이 24시간 관리, 사슴의 건강은 물론 최대한의 능력발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각 개체관리칸 앞에는 사슴의 나이, 생산량, 낙각일자, 이표,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개체관리카드를 비치, 계류장을 찾은 양육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김부회장은 “그 동안 사슴산업도 꾸준한 양적 성장을 일군만큼 소와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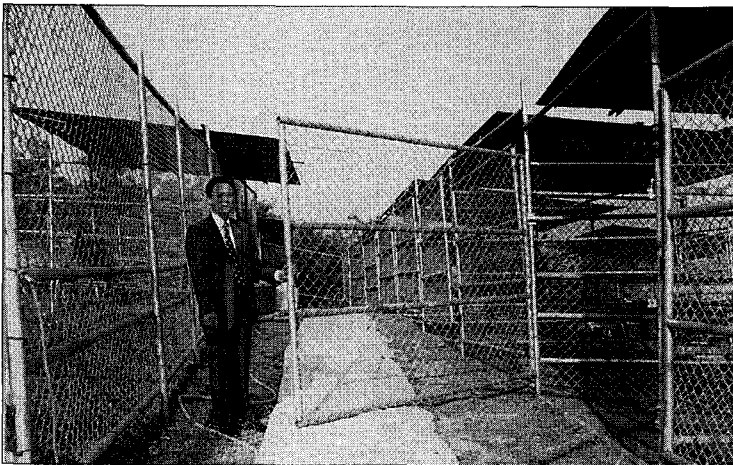
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식 시장이 마련되어야 산업 활성화가 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지역적으로 한두개 정도의 사슴 거래 시장이 생긴다면 사슴을 구입키 위해 전국을 헤매는 양육인들의 수고도 훨씬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계류장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직거래 장터 외에도 우수사슴 전시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부회장은 “녹용 생산능력이 좋은 우수사슴을 지속적으로 구입, 계류장에 전시할 예정에 있다”고 말하고 “계류장이 우수사슴 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구매자 선택의 폭도 넓힐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우수사슴 매입 계획을 밝혔다. 현재 성심사슴계류장에는 13kg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사슴이 총 9두 입식되어 있다.

김부회장은 “사슴계류장은 사슴을 구입 및 판매코자 하는 양육인을 위해 항상 개방할 예정”이라며 “관심 있는 양육인의 방문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양육**

〈문의 및 안내 : 성심사슴계류장 053-741-4021〉



▲ 개체관리칸을 열어보이는 본회 김수근부회장.